

# 지극히 거룩하신

(성가대용)

##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[다해]

2019. 06. 16

시편 8, 4-5. 6-7. 8-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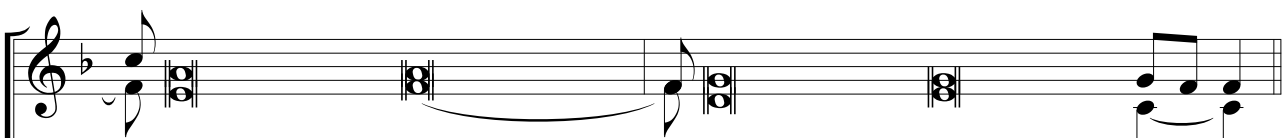
(후렴) 주님, 저희 주 님, 온 땅에 당신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 까!



1. 우 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 
빛으신 하늘하며 굳 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 
바라보나이다.

2. 천 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, 영 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 
주셨나이다.

3.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, 들짐승하며 하 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



인 간이 이토록 기억해 사 람이 이토록  
무엇이기에 주시나이까? 무엇이기에 돌보아 주시나 이 까?

당 신손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 물을 두셨 나 이 다.  
지으신 작품들을 그 발아래

물 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 스리게 하셨 나 이 다.

